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0월 30일(주일) 제1415호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11월 2~3일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
교회세미나, 가스펠나이트, 리더십 포럼, 러브소나타 집회

32번째 러브소나타가 막 오른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가 11월 2~3일 미야자키 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에서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를 주제로 열린다. 11월 2일(수) 교회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3일(목) 리더십 포럼과 러브소나타 메인 집회가 열린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포문은 11월 2일 오전 9시 30분 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교회세미나가 연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김하중 장로(前 주중대사), 이기복 목사(트리니티신학대학원 교수, 바른여성선교회)가 강의한다. 같은 날 오후 7시 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 연극홀에서는 가스펠나이트 미야자키가 이어진다. 오타 유사쿠 목사(안디옥선교회)가 설교하고, 미야자키가스펠 콰이어, M-seed(콰이어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11월 3일(목) 오전 11시에는 미야자키관광호텔에서 리더십 포럼이 진행된다. 한국과 미야자키의 리더십들이 교제하는 장(場)이다. 오후 4시에는 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 연극홀에서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메인 집회가 시작된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모리 유리, 이와부치 마코토(가스펠 가수), 김영미(소프라노), 배재철(테너),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크룩스(가스펠보컬밴드), 범키(태피) 등



지난해 이원생중계로 열린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러브소나타 한국본부는 지난 10월 7일과 27

일 참가자 교육을 했다. 참가자 교육에서는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일정 및 봉사 안내, 중보기

도, MySOS 앱 사용법 등을 설명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2,200명 1억 5천만 원 약정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결과가 집계됐다. 온누리교회 성도 2,200명이 1억 5천만 원(10월 28일 기준)을 CGNTV 정기후원을 약정했다. 미디어선교 선봉에 서 있는 CGNTV와 함께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그만큼 더 늘었다.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는 “CGNTV는 앞으로도 한계 없는 도전과 선교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미디어선교 선봉장 역할에 충실하겠다”를 약속했다.

CGNTV 후원은 홈페이지(www.cgntv.net)나 전화(02-796-2243)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지난 10월 22일(토)과 23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 김영선 기자

이웃과 사랑 나누는 ‘온누리의 가을’

엔젤트리 사연 모집 …홈페이지, 목회행정실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배송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온누리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연말 이웃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2022 엔젤트리’ 사연을 모집하고 있고,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도 본격적으로 배송을 시작했다.

2022 엔젤트리에 벌써 900여 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사회선교본부에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서 엔젤트리 사연 모집을 독려했다.

2022 엔젤트리 사연 모집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목회행정실에서 하고 있다. 엔젤트리 대상자의 이름, 신상, 연락처, 주소, 선물 등을 기록하면 된다. 엔젤트리 선물은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선택하면 된다. 의류는 사이즈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고가의 물건, 상품권, 생물은 선물로 신청할 수 없다. 2022 엔

젤트리 선물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배송될 예정이다.

엔젤트리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뜻밖의 선물을 전달하는 운동이다.

추수감사절 사르밧프로젝트 ‘감사의 쌀’ 배송도 시작했다. 지난 10월 24일(월)부터 협력 농어촌교회에서 정성스럽게 포장한 ‘감사의 쌀’을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들에게 배송하고 있다. ‘감사의 쌀’ 배송은 협력 농어촌교회의 일정에 따라 11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은 지난 10월 22일(토)과 23일(일) 교회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을 선물했다.

문의: 02-3215-3436, 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빙고 화재 대피 소방훈련 실시

10월 30일 오전 10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안전실행위원회에서 10월 30일(주일) ‘화재 대피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일요일 2부 예배가 끝나는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및 비전홀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이날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비전홀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은 화재 경보가 울리면 침착하게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하면 된다. 대피 장소는 동빙고 근린공원이자. 유도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면 된다.

장애인고 노약자를 우선 대피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화재 대피 소방훈련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대피 장소에서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예정이다.

맛있는 말씀 해설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고전 14:1)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고전 14:1).

고린도교회는 AD 50년과 51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운 교회다. 초기 고린도교회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고, 은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이 잘못된 은사 이해를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그들은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우열의식을 가지고 싸우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특정 은사가 없는 사람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기까지 했다. 그 논쟁 가운데 ‘방언’과 ‘예언’에 대한 오해가 가장 컸던 것 같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안타까운 문제를 보면서 신학적인 답변을 제시해야만 했다. 은사로써 방언과 예언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예언이란 앞날을 미리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린도교회는 많은 은사자들이 나타났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공중예배가 무질서해지고, 교회의 영적 권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먼저 12장에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면서 방언은 다양한 은사 중 하나로써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한다(고전 14:26~40).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질서 있게 하라”는데 있다. 모든 은사는 사랑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반드시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언급하며 12장과 14장을 잇는 중요한 가교를 제시하고 있다. 그가 사랑장에서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무익하고, 무의미하다”고 까지 말하는 것으로 보아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바울은 14장 1절에서 방언과 예언을 서로 비교, 대조하려고 한다. 14장 1절은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에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고전 12:31)의 논의를 이어주며 본격적으로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설명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은

모두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열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은사라도 사랑으로 행했는지의 기준이 가장 중요할 뿐이다(고전 12:3). 이 내용에 따르면 방언의 은사는 개인에게만 유익한 것이다. 통역을 필요로 하고, 자기만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언(지식과 계시)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공중예배 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 14:6). 분명히 방언과 예언은 둘 다 신령하고 꼭 필요한 은사이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공중예배 때에는 자제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모습은 오늘날 예배형식과 크게 달라서 카리스마적인 은사자들이 예배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전 14:1~25). <1세기 교회예배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예배 도중에 예언자가 일어나서 순서대로 회중을 향해 예언하기도 한 것 같다. 정경

(Canon)이 없던 시기 성령의 은사는 사도적 교회와 기초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예언은 구약시대로부터 단순히 ‘미리 본다(foresee)’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책무에 해당됐다.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豫; 미리 예)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은 말씀을 옮겨 전하는 것(預; 말을 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예언’은 신구약의 정경이 최종 완성된 오늘날 설교자의 설교에 해당한다.

오늘날 말씀의 은사를 맡은 설교자는 예언자적인 가슴으로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해할 책임이 있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생명 구원의 사명, 형제애 회복의 은혜

10월 31일~11월 6일
창세기 41:46~43:34



목상포인트 1: 하나님은 풍년과 기근 등 자연 현상으로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펼쳐 가신다.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은 7년 기근의 때에 애굽(이집트)과 주변 나라들의 굶주린 이들을 살리는 일이다. 히브리인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어진 기회와 사명에 충실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할 삶을 생각해 보자.

▶요셉은 30세에 애굽 총리가 된다. 7년 풍년이 시작되자 요셉은 곳곳에 곡식을 저장해 흉년을 대비한다.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잊어버림)와 에브라임(창성함)이다.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과거 자신의 상처를 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셨음을 고백한다. 7년 흉년이 시작되자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해지는데, 애굽에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비축해 둔 곡식이 넉넉하다.

목상포인트 2: 기근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가족과 애굽에 거주하는 요셉을 연결하고, 하

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실현되는 계기가 된다.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마주한 요셉의 심경은 복잡했을 것이다. 자신에게 저지른 악행이 있기에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었는지를 테스트한다.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요셉과 형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상하자.

▶기근으로 인해 아굽은 베나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낸다. 곡식을 사러온 형제들은 애굽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 20여 년 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여 막내 베나민을 데려오라고 한다. 형들은 과거 요셉에게 행한 자신들의 불의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연결 지으며 자책한다.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곡식 자루에 그들이 가져온 돈을 도로 넣는다. 가나안에 돌아온 형들은 아굽에게 애굽에서 겪은 일을 보고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아굽은 베나민을 빼앗길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아굽의 인간적 편애와 집착을 다루신다.

목상포인트 3: 형들은 요셉의 테스트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간다. 특히 유다는 희생하는 리더십,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인다. 그는 이복동생 베나민을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다. 편애 극복, 형제애 회

복 등 아굽 가정에 치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목상하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바닥나자 아굽이 다시 양식을 사 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베나민을 데려가야 한다. 이에 유다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베나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말한다. 아굽은 편애와 집착을 내려놓고 베나민을 보낸다. 요셉은 베나민이 형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그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다. 요셉은 베나민을 보고 애절한 마음이 복받쳐 올라 자리를 피해서 운다. 요셉이 베나민에게 다섯 배나 많은 음식을 주는 데도, 형들이 베나민을 시기하지 않는다. 이복 형제간에 깨어진 형제애가 회복된 것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풍년이든 기근이든 모든 일은 온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다. 풍년에는 감사하고, 기근에는 긍휼을 구하자.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웃(나라)을 돌아보고, 작은 도움을 실천해 보자. ▶복잡한 가족 관계와 편애 속에서 형제애는 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가족의 문제를 살펴보자. 하나님이 맺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사랑으로 섬기도록 노력하자. ▶유다는 희생하는 리더십,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인다. 내가 가족을 위해 책임감 있게 감당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실천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도현이를 위해서!

벌써 세 번째 기도편지를 올리는 도현이의 엄마입니다. 도현이를 위해 늘 함께 기도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현이는 7년 전 희귀 소아암 신경모세포종 4기를 진단받아 지금까지 투병 중입니다. 지난 7월 도현이에게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역전의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의 길에서 예배도 가고 학교도 가며 점차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른쪽 폐에 물이 다시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폐 왼쪽도 물이 차고 있습니다. 현재의 엑스레이 상태는 24시간 안에 임종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합니다. 왼쪽 폐를 그냥 두면 일주일 뒤에는 숨쉬기가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현이를 살려주시겠다는 마음을 받았기에 의학적 치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의학적 처치는 안 해볼 것이 없고, 더 이상의 처치가 하나님 일하심과 약속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오롯이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현이가 성령으로 채워져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충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켜세마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며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구민아 성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이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는 불확실성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도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가장 안정감 있는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신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영혼일수록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결핍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풍성한 사랑 속에 거하는 영혼은 불안이 없고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고, 믿고, 체험하고, 확신하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용서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완벽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구원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의 모든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질문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쏟아내는데,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확신을 전달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31절에서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확신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승전가라고 말할 수 있

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39절 b).

로마서 8장 1절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39절은 “끊을 수 없습니다”로 끝납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을까요?

첫째,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3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고소할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음을 질문을 통해 강조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31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33~34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심히’라는 것은 ‘흘러넘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

다. 계속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심각해졌을 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죽음으로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랜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죽어서 살려야지, 내 안에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이식을 하든, 뭘 하든 고민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죽음에 넘기셨다는 것이 당신의 희생보다 큰 사랑이라는 깨달았습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Octavinus Winslow)라는 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 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 받으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보다 큰 사랑입니다. 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

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

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

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

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

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

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

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

〈13면에 계속〉

엄마 아빠가 알려주는 예수님 제자 되는 방법!

하나님 만나고, 부모님과 더 가까워지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부모님과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수료한 구하은(왼쪽), 제래미(오른쪽) 학생.

친구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부모님이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부모님의 신앙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부모님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있어요. 바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에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한 친구들이 하나 같이 “부모님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서 행복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인지를 구하은 학생(서빙고 꿈땅, 초등5학년)과 제래미 학생(양지 꿈땅, 초등4학년)이 들려줬어요.

구하은 학생과 제래미 학생은 어떻게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했을까요?

하은: 부모님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럽고, 당황했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알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빠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게 됐어요.

래미: 저보다 3살 많은 언니가 먼저 엄마랑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을 했었어요. 언니랑 엄마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주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랑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자고 했어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구하은 학생과 제래미 학생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어떤 시간이 가장 좋았는지를 이야기해줬어요.

하은: 아빠가 ‘전도’ 파트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빠가 전도 받은 이야기와 전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래미: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오리엔테이션 중에 “12주 과정을 끝내고 나면 어떻게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것 같다. 엄마와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모두 끝내고 그 질문을 다시 봤는데 정말 다 이뤄졌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기뻐요. 그리고 엄마가 “하나님 말씀은 달콤하다”고 말씀 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젤리를 주셨는데 그 시간도 진짜 좋았어요.

구하은 학생과 제래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까요?

하은: ‘시험을 이기는 생활’ 파트에서 읽었던 말씀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하는 시험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집중하고, 늘 기도할 거예요.

래미: 저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오리엔테이션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며”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씀에 예수님 대신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거든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지혜가 쑥쑥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끝낸 구하은 학생과 제래미 학생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을 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늘 제 옆에 계시고, 제 말에 귀 기울이신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불평불만 대신 인내하는 방법을 배운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래미: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기 전에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귀찮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랑 같이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설교 말씀도 더 재미있고,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어요. 초등부 찬양팀에도 들어갔고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교회 가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졌어요.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0월 29일 본문 ‘창 41:29~36’



1.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땅에 다가올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잘 준비하고 해결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이집트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① 홍수 ② 흉년 ③ 태풍 ④ 전염병 ⑤ 전쟁

2.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왕에게 (1)번 문제의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온 땅에 감독들을 임명하고 7년 풍년 동안 00 중 5분의 1을 모아두라’고 조언했어요. 00은 무엇일까요?

① 포도 ② 곡식 ③ 우유 ④ 물 ⑤ 빵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32. 상대가 누구든지



차세대 QT 간증

“큐티가 정말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꿈땅 1학년 1반 황세아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혼자 큐티를 해요. 자기 전에 큐티를 하면 밤에 나쁜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잘 수 있어서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부 때는 큐티를 조금씩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QT하고 고구마 먹자’를 하면서 매일 하

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큐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24~29절이에요. 그날 큐티 제목이 ‘아버지를 속인 아들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형 에서인 척하며 다가가서 고기와 포도주를 주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사실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큐티하면서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매일 큐티를 밀리지 않고 하고 싶어요. 저는 큐티가 정말 좋아요. 아직 큐티를 못 해본 친구가 있다면 꼭 해보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고 싶어요.

/ 황세아 학생(서빙고 꿈땅, 초등학교 1학년)

“그들은 아프간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성심껏 섬기는 이유 NGO 더멋진세상, 남양주·화성·김포M센터의 아름다운 연합

온누리교회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17가구 78명)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행정과 재정적 도움을 주고, 남양주, 화성, 김포M센터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방과 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각 공동체와 성도들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물심양면 섬기고 있다. 그 덕분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인 가리미 형제(43세)와 나비드 형제(35세) 가정도 어느새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 특히 나비드 형제는 취업에도 성공해서 경기도 시흥에 터전을 잡았다. 온누리교회의 섬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를 고백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 편집자 주

온누리교회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위한 사랑의 섬김을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가 그 시작이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탈레반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난민들을 가리킨다. 한국에 총 79가정 391명이 입국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정부합동지원단’을 발족했고, 정착지 관할 출입국관서 및 NGO 더멋진세상을 포함한 9개 민간단체에서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꾸렸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정 17가구, 78명의 지역사회 정착 및 생활 지원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온누리M센터에서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남양주M센터에서 6가구 32명, 김포M센터에서 3가구 21명, 화성M센터와 용인 샘물교회에서 8가구 25명을 섬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 ‘갈대상자’

지난 10월 14일(금) 한국어 수업이 한창인 남양주M센터를 찾았다. 남양주M센터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과 성인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날 성인들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올해 말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한국어 수업까지 수료하기로 법무부와 약속했기 때문에 수업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는데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4명이 아직 한국어 수업 1단계를 마치지 못해서 주중에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광릉초등학교에 다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도 학구열이 제법 뜨거웠다. 마흐디(11살), 밀라드(10세), 시야와시(9세)가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한국어를 익혀 통역 없이도 학교에 다니고 싶다”면서 눈빛을 반짝였다. 이날 만날 수는 없었지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미취학 아동 9명은 김금희 원장 부부(북누리공동체)가 운영하는 ‘썸머힐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정이 법무부 시설에서 나와 한국 사회와 삶을 맞대기 시작한



남양주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

지 1년이 채 안 됐다. 아직도 그들을 품어주는 보호자가 꼭 필요하다. 바로 그 역할을 온누리교회가 하고 있다. 고기원 선교사(남양주M센터)는 온누리교회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섬기는 그 자체가 ‘갈대상자’라고 했다. “태어난 지 20일 만에 바구니에 넣어 군수송기를 타고 온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 전 첫돌을 보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보면서 모세의 갈대상자를 묵상했습니다. 그들의 한국 사회 적응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와 공동체, 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소속된 남양주M센터에서도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심껏 섬기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남양주M센터에서 만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온누리교회에 받은 은혜가 크다”면서 감사인사를 꼭 하고 싶다고 했다. 여섯 식구가 온누리교회의 도움을 받는 가리미 형제가 먼저 인사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주체가 온누리교회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자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큼니다. 우리들의 걱정을 알고 자녀교육에 힘써주신 강사님들과 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후 100일 된 딸을 품에 안고 한국에 온 나

비드 형제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공동 시설에서 지낼 때는 잘 몰랐는데,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갈 때, 생활에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온누리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도움 덕분에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비드 형제는 남양주M센터의 품을 떠나 독립한 첫 번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다. 지난 9월 인천 취업박람회에서 연결된 회사에 취업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경기도 시흥시에 새 터전을 마련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수하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경기도 시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조금 걱정되지만,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을 준 온누리교회가 늘 생각날 것입니다. 다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도 독립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 위한 크리스천 리더

가리미 형제는 온누리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가족 같다”는 표현을 많이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가족의 온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인접 국가나 미국으로 떠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계속 한국에 있을 생각입니다. 온누리교회라는 정말 따뜻한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저희를 떠나지 않는다면, 저희도 결코 온누리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웃음).”

법무부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사업이 내년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그즈음이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도 보통의 이주민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것이다. 그렇지만 온누리교회는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 그들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선교지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고기원 선교사(남양주M센터)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크리스천 리더’로 쓰임 받도록 온누리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더 큰 꿈을 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해 쓰임 받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에 온 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면 두 번째 기적은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의 미래가 되어서 그 땅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 기고

모든 선한 것은 기독교의 영향!

문화와 하나님 형상 회복하도록 돕는 ‘온누리세계관학교’



하선희 집사
(온누리세계관학교,
콜슨 펠로우즈
한국지부 대표)

오늘날 각종 미디어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기독교는

고대부터 인기 없는 소수민족이었고, 자연재해나 모든 나쁜 일의 원인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유명한 예가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으로 기독교에 누명을 씌운 일이다. 이밖에도 “티베르강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거나 나일강의 수위가 너무 낮아지면 그 해결책으로 항상 기독교인들을 사자 밥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핍박에 대해 426년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성경의 이상이 실제 세상을 더 좋게 만든 수많은 사례를 들어 반박한 바 있다.

지금도 우리는 어거스틴과 동일한 답을 세상에 줄 수 있다. 억압, 빈곤, 전쟁, 자연재해는 인류 공통의 운명이며, 특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시대와 장소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반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병원, 대학, 기술의 혁신이 생겨났다. 또 자유의 가치,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무신론자 역사학자 톰 홀랜드는 그의 저서 <도미니언>에서 “현대 문화의 모든 선한 것은 문자 그대로 모두 다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했다.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 생명이나 약자, 가난한 사람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선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지에 대해 글렌 선사인(역사학자, 신학자)은 인권, 여성 인권, 노예 해방, 구제 및 보건사역, 교육, 정치(법), 화합 등을 예로 설명하고 있다.

글렌 선사인이 말하는 기독교로 인해 선하게 바뀐 것들

첫째, 인권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의 원천이다. 역사상 모든 중요한 인권 운동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통해 주도했다. 특히 여성 인권이 상승하는데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했다.

로마 시대에는 딸을 낳으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여자아이는 갖다 버리는 영아살해와 낙태가 일상이었다. 이를 살인으로 본 교회는



“시대정신을 배척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다.”

버려진 여자아기들을 데려다 길렀고, 낙태도 반대했다. 당시 관습이었던 소녀들의 조혼이나 과부들의 재혼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기독교는 이혼과 남성에게만 관대한 이중적인 성적 기준을 거부하고, 엄격한 일부일처제를 고수했다. 인도에서 ‘사티’(남편의 장례식에서 죽은 남편의 아내를 함께 화장시키던 관습)를 폐지하기 위해 힌두교 엘리트 계층의 반대에 맞서 싸운 사람들도 기독교 선교사들이었다.

둘째, 노예 해방이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의 전형으로 이해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해 주셨듯이, 초기 기독교인들도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노예를 샀다. 당시 교회가 노예제 자체를 반대하지 못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노예가 없었던 사회를 본 적이 없어서 그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편만해진 이후 중세 교회는 노예제를 죄악이라고 선언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함께 끔찍한 노예제 관행이 계속되긴 했지만, 기독교인들 특히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의 동역자들은 노예무역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숏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한 결과 노예제가 결국 폐지되었다.

셋째, 구제 및 보건사역 부분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힘과 권력을 절대 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빈자(貧者)와 약자(弱者)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을 상

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이들을 섬겼고, 역사 최초의 자선기관도 교회가 만들었다.

2세기 말 안토니우스 역병이 유행하던 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로마인들은 환자를 쫓아내거나 도망갔지만, 죽으면 더 좋은 삶이 기다리는 것을 확신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기꺼이 무릅쓰고 하나님의 형상인 병자를 돌보면서 무수한 생명을 구했다. 역사상 최초의 병원도 기독교인들이 설립했다.

넷째, 교육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현실은 진리에 관한 이야기다.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알리라”는 성경의 명령은 보편적 교육이라는 개념의 기반이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일반 언어로 번역한 것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지상명령에 종교 개혁가들이 순종한 결과이다.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고매한 소명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알려지기 원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가 확장되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졌다.

다섯째, 정치와 법 분야에서도 기독교가 선한 영향을 끼쳤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어떤 정부도 맹신하거나 절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므로 어떤 권력에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상,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는 정부에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이라는 개념 모두 기독교에서 기원했다.

여섯째, 화합이다. 미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

국의 인종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도했다.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싸움이 끝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시에라리온의 무슬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 교회를 찾아가 “당신들이 전하는 그것(복음)을 우리 종족에게도 알려 달라”면서 먼저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는 일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기독교보다 인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은 없다

인간성이 회복되는 곳마다 어김없이 교회가 있었다. 특히 인권의 모든 개념은 기독교적 인간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회를 파괴한다면 그 사회에 미래는 없다.

존 레녹스(옥스퍼드대 교수, 변증가)가 학계에 입문할 당시 “아직도 그 미신 같은 것(기독교)을 믿냐”고 조롱하는 엘리트 교수들에게 “그럼 나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반문했다. 물론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었다. 기독교보다 인류에게 더 선하고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악하다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토록 선하고 소중한 기독교 신앙을 분명하고 자신 있게 살아내려면 먼저 복음이 다른 세속적 세계관보다 선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온누리세계관학교의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에서 복음이 언제나 오늘이나 선하며, 진리이기에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과거 성 어거스틴처럼 기독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지혜롭게 답하고, 인생을 사는 최고의 방법인 복음을 이웃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계관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

시대정신을 배척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써 문화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누리세계관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한다.

2022 온누리세계관학교
일정: 11월 1일~29일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Zoom) 실시간 강의
신청 및 문의: 아이스쿨, 02-3215-3637

III 강영재 장로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누룩이 영적으로 죄를 의미하는가?

‘비유’는 복음에 가까워지도록 돕는 도구



강영재 장로
(양천공동체, 전 연세
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교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8절에서 누룩(효모, yeast)을 제거해야 할 것, 악하고 해로운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누룩은 영적으로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십시오”(고전 5:7-8).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누룩의 비유에서 누룩이 정말 영적으로 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약성경 제사법에 나오는 소제물과 유교병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무교절의 무교병, 그리고 진설병과 함께 살펴보자.

소제물과 화목제물

구약의 제사법에서 무교병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에는 소제물로 무교병을 드릴 것을 명하고(레 2:4),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레 2:11) 말씀하신다. 그러나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제물을 가져오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두꺼운 빵이나 올리브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이어야 한다”(레 2:4).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바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레 2:11).

누룩을 넣어 발효된 유교병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한 경우는 유교병을 감사제물과 함께 제물로 드리도록 명령하신다. 화목제물 드리는 법을 설명한 레위기 7장에 설명되어 있다. 또 다른 경우는 누룩을 넣어 구운 유교병을 흔들도록 명한다. 이 경우는 맥추절에 첫 곡식단을 주님께 요제(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법을 설명한 레위기 23장에 설명되어 있다.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화목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드려야 한다”(레 7:13).

“너희는 여호와께 흔드는 예물로 드릴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에다 누룩을 넣어 구운 빵

두 덩이를 너희가 사는 곳으로부터 가지고 와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첫 열매다”(레 23:17).

무교병과 진설병

다음은 무교병(마짜 혹은 마썬)으로 이는 제물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에 먹는 빵이다. 발효되지 않아 딱딱하고 먹기 힘들어 ‘고난의 빵’이라고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7일 동안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지 않고 구운 무교병을 먹는다.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우도록 하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출 12:15).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우도록 하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24장 5절에 나와 있다. 진설병이 무교병인지 유교병인지 언급이 없다. 그러나 진설병은 소제물이 아니고, 매 안식일에 새로 구운 진설병을 상에 올리고 난 뒤 내린 진설병을 제사장과 그 가족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유교병일 가능성이 크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출 25:30).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각각 10분의 2에바의 무게로 빵 12개를 구워라. 그것들을 한 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여호와 앞의 순금 탁자 위에 두어라. 그리고 각 줄 위에 순수한 유향을 얹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이것이 그 빵의 기념 제물, 곧 주를 위한 화제물이 되도록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여호와 앞에 계속 빵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의무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몫이다.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

“

비유는 복음에 가까워지도록 돕는 도구다.

비유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뜻을 제대로 살피야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리고,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

될 것이다”(출 12:15).

“여호와와 무교절은 그달 15일에 시작된다.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레 23:6).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성찬)을 드실 때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신 것도 무교병으로 유월절 저녁 식사 때 행하신 일이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마 26:17).

위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무교병은 소제, 즉 태워 바치는 예물이고, 유교병은 제사 이후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나눠 먹는 제물임을 알 수 있다. 무교병을 먹는 경우는 무교절뿐이다.

그렇다면 성소 순금상에 올리는 진설병(거룩한 빵, 떡, 과자로 번역)은 어떠한가? 진설병에 관한 내용은 출이집트기 25장 30절과 레위기

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화제물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레 24:5-9).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제물로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음식 정결법인 ‘Kosher’(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식재료를 선택하고 조리한 음식을 일컫는 말)에 누룩이나 발효된 빵을 부정한 것으로 지정하지도 않으셨다. 평소 유교병을 주식으로 먹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 누룩 그 자체가 죄를 의미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누룩의 속성

또 결정적으로 누룩이 죄를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마 13:33)”라고 하셨다. 만약 누룩이 죄를 의미한다면

면 누룩을 하늘나라의 비유로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사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마 13:33).

예수님께서 바리새와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경고하실 때에도 “누룩을 조심하라”(마 16:11~12)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죄의 급속한 확산 속성을 미량의 누룩에 의해 큰 반죽 덩어리가 빨리 팽창하는 것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다. 이어 나오는 고린도전서 5장 7~8절 말씀도 누룩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시 사회에 확산한 장로들의 전통(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만든 규례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와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에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와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마 16:11~12).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고전 5:6).

결론적으로 누룩 자체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누룩에 의한 발효가 반죽을 신속하게 부풀려 변화시키는 속성을 죄의 빠른 확산, 하나님 나라의 빠른 확산, 장로들이 만든 규례가 빠르게 퍼져 나감을 설명하기 위해 누룩을 비유로 사용한 것이다. 매일 반죽을 발효시켜 빵을 구워 먹는 당시 사람들에게 누룩의 비유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누룩의 비유처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온다. 성경에 적힌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달라서 자칫하면 오해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피야 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신 이유는 복음을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이 복음을 더 쉽게 알아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우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 비유는 복음에 가까워지도록 돕는 도구다. 그 비유의 말씀들을 멋대로 왜곡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피어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알고 있기!

“왜 기독교에는 유독 이단이 많은 건가요? 이단과 정통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넉리스천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대학부 시절 함께 믿음 생활하던 친구들이 있었다. 새벽기도와 화요성령집회 등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던 일이 아직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어느 날, 안타깝게 몇 명의 친구가 이단에 빠졌다. 여러 방법을 모색하며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이단에 깊이 빠진 친구들과 자연스레 멀어졌다. 그때 이후로 이단에 대해 경각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이단은 왜 이렇게 많고,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유일한 참진리이기 때문이다. 값비싼 명품이 등장하면 그 명성을 이용해서 모조품이 생기게 마련이다. 명품 모조품들이 등장하고, 유명 가수에게 는 그를 따라하는 모창 가수가 여러 명 나오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서 많은 가짜 진리들과 이단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가 진짜이고,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셈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 우주보다 훨씬 크고, 깊으시며,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모두 이해할 수 없고, 부족하며,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부분과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단은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해 들어온다.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꺾어낸다. 그 꺾에 걸린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을 긁어주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고, 그곳에서 말하는 복음이 참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며 열심을 낸다. 그렇다면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복잡하고 다양해서 모두 판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단들의 특징 몇 가지를 알고 있다면 분별할 눈을 가지게 된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은 이단이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 이단이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 받을 수 있다. 다른 루트를 통한 구원은 결코 없다.

셋째, 기성교회에 대한 강한 비판과 비방, 그리고 기성교회는 타락했다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회만이 거룩하고 참되다고 주장한다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불완전한 곳이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고, 불완전한 모습이 보인다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나 약속들을 부인한다면 이단이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으로 얼마든지 그 기적들

을 행하실 수 있다.

다섯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이단이다. 성경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막 13:32)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 재림의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여러 형태와 모양, 논리로 이단들은 계속 생기기 된다. 몇 가지 기준을 기억하고 판단하기를 바란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공부하기를 바란다.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위조된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진짜 지폐를 더 많이 연구하듯이 우리도 진짜 복음, 진리를 알아간다면 이단적인 가르침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안사무엘 목사
(CHPLU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가족상담

부모는 부모의 삶을, 자녀는 자녀의 삶을!

유독 어른 못지않게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는 자녀가 있다. 믿음직스럽게 행동하고 가족 중 심적으로 역할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가 믿음직스럽게 혹은 어른스럽게 가정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역기능적인 양육 태도로 인한 것이라면 문제다. 사실 자녀는 자녀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나 해결자 혹은 가족의 영웅으로 자녀 중 한 명이 자라면 그 자녀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가족의 역동을 기대하기 힘들다.

유독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든 부부가 있다. 그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포기하고 자신이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댈 수 있는 대상으로 자녀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너는 우리집 기둥”이라는 기대를 자녀에게 전하면서 그 역할을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감당해주기를 바란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고, 배우자에게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 안정을 추구한다. 심지어 경제적인 안정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자녀는 가족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원하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배우자 중 한 명의 심리정서적 대리역할도 하고,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부모의 이야기도 끝없이 받아줘야 하는 역할도 한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어린 나이부터 너무 많은 가족의 짐을 지

고 사는 것이다. 어쩌면 짐을 지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가정의 구원자나 해결자 역할을 했던 자녀가 결혼하면 역기능적인 관계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동안 부모나 가족구성원이 누렸던 의지할 대상을 상실한 느낌을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영웅 자녀의 결혼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히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떠나보낼 생각도 없다. 오히려 더 밀착하고 융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겉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네가 결혼하면 부모인 나는 누굴 의지하니!”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누구나 도움을 주었던 영웅을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영웅을 늘 의지하고 싶은 심리적 기대를 할 수 있다. 한편 영웅 역할을 지속했던 자녀는 늘 가족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원할 역할을 할 사람이 자신이라고 여기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책임지지 않아도 돼’, ‘힘들면 기대도 돼’라는 생각은 자신에게 매우 큰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홀로 삶의 짐을 지고 성장하게 된다. 그 자녀의 마음을 역기능 가족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자신들이 의지하는 끈 놓기를 완강히 거부할 수도 있다. 그 자녀가 성인이 됐고,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음에도 말이다. 물론 무의식적인 역동일 가능성이 크다. 그 자녀는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더라도 영웅의 역할과 해결자의 역할을 늘 감당하고, 가족의 기둥 같은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원

가족과 분리하지 못하고 얽혀있게 된다. 여전히 원가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기존처럼 해결해 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 때로는 당연하듯 요구하기도 한다. 어떤 어머니는 남편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결혼한 딸에게 전화한다. 어머니의 힘들고 어려운 감정의 고통과 불안과 분노를 딸에게 쏟아 놓는다. 그 딸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털어놓는다. 사실 그 딸은 부모의 삶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여전히 중재자나 해결자 역할을 요구 받는다.

부부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서툴더라도 스스로 해결해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해결자 역할을 했던 자녀가 더는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당사자는 가족의 문제를 중재하거나 해결하는 역할을 그만두겠다는 다짐도 필요하다. 집안의 기둥 역할을 기대하고 자란 자녀는 때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의지의 대상이 되곤 한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손을 내민다.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어려우니 너는 당연히 도와야 해’라는 태도일 때가 많다. ‘양육했던 노력과 헌신을 잊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자녀를 성공한 전문인으로 키웠던 부모가 있었다. 그 자녀는 부모에게 자랑거리였고 삶의 낙이었다. 의지할 듬직한 자녀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사랑하는 이성을 만났고 이후 결혼하게 되었다.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 ‘전문인으로 키워서 이제 덕 좀 보려고 하는데 떠나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당당하게 수입의 일정액을 요구한다. 자녀의 배우자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가정의 역기능적인 얽힘은 강력했다. 그 부모에게 자녀는 영웅이며, 의존하는 대상이다. 재정적으로도 언제든지 손을 벌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자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녀를 위한다면 영웅 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지 않을까? 자녀도 구원자 역할, 해결자 역할, 영웅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녀도 역기능적인 역할을 내려놓아야 하고, 부모나 형제자매들도 내려놓아야 한다. 역기능적으로 융합된 관계의 끈을 서서히 끊어내야 한다. 만일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녀에게 연락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부부라고 한다면 그 패턴을 멈추고 부모 스스로 해결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는 영웅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녀도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시 46:1~11).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섬교회 나들이’

복음 전하는 고군분투!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나우리트릿 대표)

고군산군도는 군산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으로, 16개 유인도와 47개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의 군락이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해상관광공원이다. 특히 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이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의 장소, 힐링의 장소, 머물고 싶은 인기명소로 손색이 없다.

과거 고군산군도의 모습은 어땠을까? 옛날에는 고군산군도의 섬들을 한번 방문하기도 어려웠다. 날씨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배편을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아서 어느 섬은 들어가는 데 한 달, 나오는 데 한 달이라 할 만큼이었다.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고, 오랫동안 무속과 미신으로 채워진 곳이었다.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이 아무렇지 않게 펼쳐지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에도 어김없이 복음이 스며들었다. 교회가 설립되는 역사가 펼쳐졌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새끼발가락이 머리에서 멀다고 몸의 부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섬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김용은 목사로부터 시작된 고군산군도의 교회들.

1950년 후반 군산중동교회 김용은 담임목사는 도지사를 설득해 그와 동행하며 미신과 무속이 득세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이 정말 열악한 아니 참혹한 섬마을을 순회했다. 복음전파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생활 개선 사업을 정부와 함께하고, 고군산군도의 섬들을 돌아본 그 일이 고군산군도와 복음의 첫 만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용은 목사는 1951년 전쟁의 흔적이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군산에 교회를 개척했다. 공산당에게 일가족이 순교한 아픔이 있었지만, 보복하거나 분노에 휩싸여 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서 용서와 화해의 사도가 되었고, 같은 아픔을 지닌 이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 김용은 목사는 찾아오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학교를 설립하고, 교도소선교와 군선교 등 당시 목회 영역의 바깥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 김용은 목사는 교아의 아버지, 장애인의 친구, 재소자의 후견인이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헌신의 사람 김용은 목사를 고군산군도의 섬마을로 인도하셨다.

초등학교에서 첫 예배를 드린 ‘아미도교회’, 이명철 씨의 사랑방에서 시작한 예배에서 소금창고로 이사해 창립한 ‘선유도교회’, 장자도로 이사 온 신화순 씨가 시작한 ‘장자도교회’, 김용은 목사의 지원을 받은 추명순 전도사가 개척한 ‘말도교회’, 김용은 목사가

직접 교회 간판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연도교회’ 등 고군산군도 섬마을 교회에는 김용은 목사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다. 김용은 목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교역자 후배들을 지원하고, 각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을 은퇴 이후까지 기꺼이 이어나갔다.

지금은 연륙교 건설로 섬들이 육지와 한 몸이 되어 왕래가 편하고,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섬마을이라는 이름표를 더는 달지 않은 지역이 되었다. 교회는 어떻게? 어엿한 건물을 가졌고, 예전과 달리 교회마다 담임목사가 세워져 어느 교회와 다름없어 보인다. 하지만 후보조차 만들 이유가 없는 교회, 모든 예배를 담임목사가 감당하고, 사모님이 반주를 맡고, 교회학교는 보이지 않고, 안내위원은 한 집사님의 이름만 있는 교회들이다. 여전히 섬교회와 어촌교회는 온 힘을 다해 살아내는 교회들이다.

고군산군도의 교회들은 보내는 선교사 김용은 목사의 헌신으로 시작되어 복음의 씨앗이 심겼고,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자라 어엿한 교회로 성장했다. 하지만 고군산군도 교회들이 더는 고군분투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섬김의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가을, 시원함이 여행을 부르는 계절, 고군산군도를 찾는다면 인근의 교회들을 직접 찾아보고, 그 교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란노 신간

부모의 불안이 엇갈린 사랑 만든다!

〈너무 사랑해서 아픈 부모에게〉
오종은 저 | 두란노 | 14,000원

게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상담한 부모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조언한다.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지,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불안한 부모, 자녀의 마음을 알고 싶은 부모,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부모들에게 추천한다.

‘부모는 사랑이라 말하고, 아이는 구속이라 느끼는 엇갈린 사랑’

이 책 소개문에 적힌 문장이다. 이 한 문장이 요즘 시대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요즘 시대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 딱 좋다. 자녀가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부모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매일 같이 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이다 보니 자녀의 안전을 위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부모의 불안이 엇갈린 사랑을 만든다. 너무 사랑하고 불안해서 자녀들을 자주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려 한다. 자녀들은 그 울타리가 답답하고 구속이라고 느낀다. 적당한 사랑이 필요하다. 잘못된 사랑이 아이를 오히려 힘들게 할지 모른다.

자녀에게 적당히, 알맞은 사랑을 알려주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 있다. 두란노 신간 〈너무 사랑해서 아픈 부모에게〉다.

CGNTV 신규 콘텐츠 소개

어떻게 살아갈 지를 준비하는 시간



‘레디슨’

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보와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레디슨’을 선보였다. 레디슨은 MC 이흥렬과 전문가들이 출연해 30분 동안 ‘한 주간 기독교 소식’ 등 주요 이슈를 다루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23일(일) 방영된 ‘레디슨’ 첫 회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출연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 다수차별법입니다. 소수의 사람 때문에 사회의 근간 질서가 뒤집히기 때문에 다수를 차별하는 법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법 제정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차별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청 안내: 기독교 OTT ‘풍당’, CGNTV 유튜브 채널

쏟아지는 이슈와 사건들을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답게 살기 위해 이슈와 사건에 열심을 가지고 주위에 조언을 구하고, 뉴스도 읽지만 금방 지칠 때가 많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색 짙은 의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이 피로감을 느끼고, 사회적 이슈와 담을 쌓고 만다. 이러한 시대에 CGNTV

‘그리스도를 위한 어리석음’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출범식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22일(토)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있었다.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출범식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의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제4차 로잔대회 공동대회장)의 설교, 준비위원 위임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어리석음’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한국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한 어리석음’이라면서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로잔운동이 되도록 준비하자”고 권면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 준비위원회

의장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총무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실행총무 김홍주 목사(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장)가 위촉됐다.

제4차 로잔대회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전 세계 선교리더십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막바지

11월 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

전 세계적인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 캠페인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시작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오는 11월 6일(주일)까지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에서 이어진다. 기도봉사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기도 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한다. 온누리교회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기도 봉사를 담당한다. 기도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요일에도 기도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 홈페이지(http://40daysforlife.or.kr)나 전화(02-703-4620)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31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새빛공원음악회 ‘생명에서 생명으로’

11월 5일 오후 3시 합정동 화력발전소 내 잔디공원

바른여성선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생명 음악회를 주최한다. ‘새빛공원음악회’가 오는 11월 5일(토) 오후 3시 마포구 합정동 화력발전소 내 잔디공원에서 열린다. ‘생명에서 생명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새빛공원음악회에서는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 모두 소중한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김희숙(플룻연주자), 김진택(기타), 홍우석(트럼펫), 이길재(첼로), 오아시스스카이어(지휘 이상욱), 생명을 주는 나무 유초등부 합창팀이 출연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313

신년 해돋이를 예루살렘에서!

12월 28일~1월 3일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

2023년 신년 해돋이를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 이스라엘 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12월 28일(수)부터 내년 1월 3일(화)까지 6박 7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010-4902-1022)로 하면 된다.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에서는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구약성경, 사복음서, 중동전쟁사, 초기의 로마 황제, 헤롯왕조의 흥망, 유대인의 자녀교육 등을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한다. 문의: 010-4902-1022

창조과학탐사 참가자 모집

11월 5~6일 1박 2일 전북 지역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 흔적이 남아 있는 지층을 탐사하면서 창조신앙을 바로 세우도록 돕는 ‘창조과학탐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부안 채석강, 김제 7자 교회를 방문한다. 수강신청은 10월 3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창조과학탐사에서는 ‘창조와 심판의 흔적 그리고 복음’, ‘공룡은 사람과 함께 살았다’, ‘성경과 과학’, ‘창조질서와 건강’, ‘식물을 보면 설계자가 보인다’ 등을 주제로 강의를 듣는다. 창조과학 탐사 활동, 박물관 투어, 탐사 활동 나눔 등의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문의: 010-7636-6305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11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1월 22일까지 아이스쿨 또는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에 대한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문의: 02-6959-0001

어린이신문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실을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의 작품(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모집한다.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 보내면 된다. 문의: 02-6959-0001

온누리세계관학교 세미나

11월 1~29일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Zoom)

온누리세계관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11월 1일 조준목 목사 ‘세계관이란’, 8일 류현모 교수(서울대) ‘세계관 비교’, 15일 정운오 장로(서

울대명예교수) ‘세계관과 소비주의’, 22일 신무한 장로(연세대 교수) ‘세계관과 과학주의’, 29일 최도성 장로(한동대 총장)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2-3215-3637

Love Sonata

미야자키 기 · 도 · 제 · 목

- 10월 31일(월) 러브소나타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 11월 1일(화) 강사, 출연자, 참가자, 스태프들의 발걸음을 축복해주소서
- 11월 2일(수) 교회세미나,가스펠나이트,리더십포럼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 11월 3일(목) 러브소나타에 참석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 11월 4일(금) 러브소나타에서예수를 영접한이들이지역 교회로 잘 연결되길
- 11월 5일(토) 미야자키의 모든 교회들이새 힘을 얻고 복음 전파에 더 힘쓰길

화성M센터 한국어 교사 봉사자 모집

화성M센터(화성시 향남읍 3.1만 세로 1103-1호 3층)에서 한국어 봉사자를 모집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화성M센터 소속 네팔, 캄보디아 이주민들에게 한국

어(초급, 중급)를 가르치면 된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으로 이주민을 섬길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4605-2510

10월 세례자

■서빙고 나 철 861224	배연우 김인영	차성진 장지영	김진원 830625	김선옥 조예나	장진수 남민경	황창희 김 희
백진경 850820	이로운 200831	최새잎 201020	남민경 900114	김하연 200911	장하민 211208	황유나 210209
이상인 781225	이태신 강옥경	최영민 정민주	위성민 621121	김대수 권예은	장진수 남민경	황창희 김 희
입교	이윤표 220731	최유준 220318	전낙근 380409	남시는 210929	최지호 190524	
이홍정 861021	이규호 배은선	최재하 유현정	정가희 910122	남승현 김채완	최운혁 이수진	■대학청년부
유아	이음표 190511	한지수 200921	정재은 800205	노승민 210930	최서호 220524	하늘
김호운 170106	이재인 210112	한재준 하주현	입교	노진호 전상은	최운혁 이수진	입교
김성배 공선미	이호준 이호선	허로아 220609	강예지 930109	박주원 200210	한예준 180811	류하민 960130
류시진 210618	전아리 200409	허운석 한혜진	유아	박현묵 이수연	한대봉 안유나	서주원 990115
류성준 박지수	전정민 이루다	황하임 200826	김영랑 210802	박해준 210517	한에서 180811	최세희 950625
박유안 180731	조수찬 210319	황성민 임선아	김성수 신 정	박운선 우혜리	한대봉 안유나	황승연 980803
박송주 유지원	조명희 최지원	■양재	김예준 210705	이로희 210923	황서준 210103	
배노을 220107	차서준 190920	김진영옥김유진	김준영옥김유진	이주성 김민정	황희승 이해민	
		김신희 680101	김이든 220207	장하은 190625	황이나 210209	

유아세례 간증



/ 부 허운석, 모 한혜진, 자녀 허로아

둘째 임신을 계획하면서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때에 아이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임신에 대한 모든 과정을 맡긴다고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에서는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때를 맞춰 계획하면 쉽게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한 배란 날짜를 받고 기다려도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았다. 몇 달을 그렇게 임신을 기대하며 노력하고, 안 돼서 좌절하기를 반복했다. 비록 몇 달이었지만 몇 년을 기다리는 난임 부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기대감과 좌절감으로 몇 달 동안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문득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인간적인 열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에 태의 문을 여셔서 아이를 허락하시기를, 만약 주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둘째를 허락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바로 다음 달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다.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았다. 그렇게 두 번의 유산을 더 하고 지금의 로아를 만날 수 있었다. 유산하는 과정

에서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생명을 허락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만을 허락하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두 딸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원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봤다. 주님이 귀중한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할 가족을 만드시는 것이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남편과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하고, 자녀들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아의 이름은 한자로 길 로(路), 마중할 아(翹)다. 그 이름처럼 로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맡아 기르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로아의 앞날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해피맘 수료 간증



/ 함효정 성도(계산세일교회)

두란노어머니학교에 참가했을 때 진정엄마와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과제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편지를 쓰다가 마무리 짓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해피맘(두란노어머니학교 후속프로그램)을 꼭 하라는 권면을 받았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했다. 해피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만지셨다.

해피맘에서 만난 박은미 리더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와 위로해주었다. 하나님의 위로와 큰 사랑을 느꼈다. 가족들도 우리 가정을 멀리하고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박은미 리더는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위로해주었다. 처음 느껴본 사랑이었다.

박은미 리더가 다녀간 뒤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비난하지 않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 내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아픈 데는 없어?"라고 말문을 열었다. 남편은 나에게 안부조차 묻지 않았고, 쓸데없는 말만 했다. 생각보다 남편은 씩씩했고, 나보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방법

괜찮아 보여서 되려 분노가 다시 올라왔다. 어떻게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할지를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남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뒤로 남편과 약속하고 남편에게 기도문을 하나씩 보내주고 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로 어둠의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해피맘을 하기 전에는 나는 잘못된 게 없는 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과 분노로 무기력하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악과 분노와 미움과 혈기의 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죄인인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과 자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 가정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다.

유아세례 간증



/ 부 이호준, 모 이효선, 자녀 이재인

우리 부부는 임신하기까지 참 어려웠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그 시간 동안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아무리 좋은 컨디션, 의술, 환경 등이 준비되어도 임신이 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8년 차에 첫째 아이를 가졌다. 감사하게도 아이는 잘 자랐다. 큰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둘째 아기를 계획했다. 둘째를 임신하기 위해 또다시 난임병원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병원 방문 한 달 전, 우리 부부는 의술을 통하지 않고 자연임신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했었다.

'둘째 아이는 자연임신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뜻밖의 선물처럼 둘째를 갖고 싶어요!'

둘째 임신을 확인한 우리 부부는 너무 기뻐서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로 일상의 많은 것이 멈춘 상태였다. 우리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도 잠정 중단돼버렸다. 조금 막막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기를 주신 하나님

뜻밖의 선물처럼

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다. 둘째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부부는 눈앞에 닥친 상황에 많이 낙심했을 것이다. 답답한 상황에서도 배 속 아이를 생각하며 감사를 떠올리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우리 부부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그러나 네 살 큰애와 신생아를 키우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빴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첫째 아이는 우리 부부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다. 그리고 둘째 재인이는 하나님의 위로와 심과 은혜이다. 시기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을 때 우리 부부가 소망하는 기도를 들어주셨다. 재인이가 찾아온 그 순간부터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참 힘들다.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 낳았으니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양육할 것이다. 광야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이현경 선교사(벨엘워십하우스)

어릴 때 교회에서 아버지학교가 열렸었다. 그 후 남자 성도들의 표정도 말투도 달라졌던 것이 기억나. 작년에 남편을 달래고 기도하여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게 했지만 동일한 남편의 모습에 실망도 있었다. 예전 부부상담에서 '우리 문제의 원인 90%가 아내'라고 생각한다는 남편의 말도 떠올라 '그래 내가 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찾았다.

그런데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수차례 포기를 생각하며 지내왔다. 그러나 정말 눈앞에 어머니학교 개강이 다가오자 주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며 "떨아가거라, 두려워 마라, 내가 다 준비했다"고 하셨다. 이젠 도저히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기쁨과 기대로 도착하여 드린 첫 예배는 감격이 넘쳤다. 그런데 첫날 강의를 들으며 저 깊숙은 내면들이 드러났다. 내 민낯을 보는 것이 괴로웠고, 여전히 낮은 자존감, 정체성이 건강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주님은 두란노어머니학교를 통해 진짜 내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억지로

인정, 용서, 반복, 사랑

아픈 상처를 깊이 덮어서 이제 다 나은 줄, 용서한 줄, 건강한 줄 알면서 내 자신도 깨닫지 못하게 살던 나를 안타깝게 보시던 아버지께서 "딸아, 너 아픈 거야. 덮어 버려서 묻히고 기억 안하면 끝이 아니야. 그럼 이제 온 몸에 그 독이 다 퍼져 너를 삼켜"라고 말씀하셨다. 내 피부가 왜 이런지 이해 못한 채 살았는데, 여전히 용서 못하고 겉으로는 다 용서한 척 사는 것이 내 몸을 병들게 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주님이 답을 주신다. 여전히 용서 못하고 또 아파해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해라. 용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과정이야. 이 땅에서는 그런 거야"라고 말씀하신다. 나 자신을 용서하기. 하나님을 용서하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 사람은 기대하는 게 아닌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이 나의 어머니학교의 결론이다. 우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삶 속의 나에게, 자각 없는 나에게 늘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오늘도 힘을 얻어 나아간다.

신앙에세이

외로움 극복하는 ‘관계의 치유력’



최용준 목사
(강남B공동체,
양재상당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다. 흔히 장수의 비결은 규칙적 운동이나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외로움’에 잘 대처하는 것이다.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 흡연보다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고 한다. 미국 공중보건 국장이었던 비벡 머시는 “외로움은 모든 공중보건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라고 규정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폭력, 우울증, 불안감 등 현대의 여러 질병의 근본 원인이 외로움이라고 보았다.

‘외로움(Loneliness)’이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후반이라고 하는데, SNS 등으로 누군가와 늘 연결되어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흔히 느끼는 감정이 되어 버렸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외로움이 모든 사람이 겪는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은 2018년부터 외로움 담당 장관을 세웠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도 외로움에 대처하는 부서를 설립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풍요로운 삶을 누림에도 외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외로움은 고독과 다르다. 고독은 자발적으로 평화롭게 혼자 있는 상태를 즐기는 것이다. 많은 영적 선배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독을 선택했다. 반면 외로움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지만, 그 속에서 심리적으로 동떨어지고 단절됨을 느끼는 감정이다. 외로움을 느낄 때 타인에게 다가가기보다 스스로 물러서고, 심하면 친한 사람에게조차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바로 그때 내면적으

로 자신이 타인에게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단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외로움을 없애거나 줄이는데 ‘관계의 치유력’이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있기보다 소수라도 친밀한 감정을 나누는 사람에게서 행복감을 증가시켜주는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한다. 그 때문에 외로움으로 인한 심장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법으로 공동체 활동을 처방하는 의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외로움은 그저 부정적 감정을 주는 몸의 신호일까? 아니면 더 건강하게 삶을 살도록 공동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일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후자일 것이다. 공동체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공간이다. 동시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다. 순은 말씀 안에서 진실한 감정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말씀 안에서 두려움과 연약함을 함께 나누다 보면 어느새 친밀함과 하나 됨이 주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다. 리빙핸드,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사랑챔버 등의 사역은 외로움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세상을 경험하게 해준다. 찬양팀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기쁨과 삶의 동질감으로 인한 회복을 경험하게 해준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이 섬기던 지적장애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장수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권사칼럼

익어간다는 것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오래 묵을수록 맛이 깊어지듯이, 잘 익어가는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감동이 된다. 꽃이 예쁘다 하지만 질어가는 단풍이 꽃보다 아름답다.

얼마 전 강동온누리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남이섬으로 야외회를 다녀왔다. 다행히 날씨가 바깥 날들이 하기에 딱 알맞았다. 하늘도 맑고 더 없이 푸르렀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갖는 행사였다. 버스에 언제 만나도 푸근한 낮익은 얼굴들이 하나 둘 들어선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세월의 깊이만큼 잘 숙성하고 있는 시니어 회원들! 살아온 경로이 오랜 신앙생활에서 오는 사랑과 어우러져 편안한 모습들이다. 미국에서 온 친구 부부도 초대해 합류했다. 회원이 아니지만 모두 반겨줬다. 교회 어른들 행사라고 이준호 담임목사님, 김병조 부목사님, 조중희 간사님까지 섬기기 위해 동행해 주었다.

버스에 탑승해서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다. 간식도 한 보따리 풍성히 나눠줬다. 한 시간 즈음 달려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 근처 임초리에 있는 기와지붕을 얹은 ‘옛골’이라는 멋진 식당에 도착했다. 잣두부 전골과 주꾸미 볶음으로 맛난 점심 식사를 했다. 바로 옆 카페에서 우아하게 커피까지 대접을 받았다. 목사님과 간사님께서 직접 커피 배달까지 해주며 섬겨주셨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마침 근처 별장에 내려와 있는 친구와 통화가 되어 잠깐 얼굴 보러 식당으로 왔다. 미국 친구와는 학교 졸업 이후 수십년이 넘어 만나는 터라 더 큰 감동이 있는 해후였다. 소녀 시절로 돌아가 헤쳐지는 웃음이 가을 햇살

속을 난다. 뜻하지 않게 만나서 더 반가웠다.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 같은 시간이었다.

남이섬에 도착했다. 한창 나들이 철이라 사람들로 붐볐다. 배를 타는 일은 언제나 낭만적이다. 몇 번 다녀온 곳이지만 가을이 익어가는 남이섬은 어디를 둘러도 한 폭의 그림이었다. 자유롭게 흠어져 여기저기 산책하며 한가롭게 가을과 하나 되는 행복함을 누렸다. 아름다운 자연에 서면 창조주의 위대한 솜씨에 겸허한 마음이 되고, 감사로 벅차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 있음이 감사하고, 두발로 건강하게 다니며 누릴 수 있음이 감사했다. 오후 3시 30분에 모여 돌아오는 길은 아직도 해가 남았다. 한 가방씩 챙겨준 간식이 무거운 채로 있다. 대가없이 섬김을 받으며 교회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했다. 어디서나 대접 받는 나이에 부끄럼이 없도록 잘 숙성한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진다.

강동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강동 문인협회 주최 동판화 시화 전시회와 연극제에 참석했다. 결실의 계절, 문학 단체, 예술단체마다 풍요가 익어간다.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 시향과 문화의 향기에 젖어 보는 여유로 감성이 촉촉해졌다. 서울 시민 연극제 대상 수상 작품인 ‘바다로 가는 기사들’이라는 연극까지 보고 집에 돌아왔다. 아직 체력이 반쳐쑤미 감사했다. 그림같이 아름답고 배려와 사랑으로 따뜻하고 행복했던 하루였다. 또 하나의 보석 같은 하루를 인생 여정의 목걸이에 꿰다. 날마다가 마지막 구슬인 것처럼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 보면 언젠가 내 생의 목걸이가 완성 되는 날 영롱한 빛깔로 남아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리움으로 기억되겠지. 소풍 왔다 잘 놀다가는 감사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향기로 익어가자. 서서히 피곤이 몰려온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하며 자리에 누웠다. 내일은 내일대로 또 다른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다.

장로칼럼



이용경 장로
(CGNTV 대표)

가을이면 CGNTV는 바빠지기 시작한다. 10월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부터 CGNTV 후원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드림은 콘서트, 정기약정 후원행사, 비전모임 등으로 대표되는 CGNTV의 후원행사들은 12월 초까지 진행된다. 그해 CGNTV 후원 행사들의 결과에 따라 이듬해 사역의 범위가 결정된다.

또 한편으로 CGNTV 후원행사는 한 해 동안 CGNTV의 미디어 사역을 향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는 ‘진실의 순간’이다. 더 나아가 CGNTV 후원자들을 직접 만나는 귀한 소통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후원 행사

는 CGNTV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마주하는 기회다.

모든 기독교 방송국은 선교를 사명으로 삼는다. 그러나 최대 3만 명의 한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상업광고 없이 오직 현금으로만 운영하는 곳은 CGNTV뿐이다. 이 비장하고 합리적인 결단이 CGNTV 모든 직원이 예배와 QT로 하루 업무를 시작하도록 했다. CGNTV 임직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번 느끼면서 늘 겸손하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또 한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CGNTV 정기약정 후원행사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이 제한되었던 지난 2년은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위기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이 CGNTV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

한계 넘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비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독교 OTT ‘풍당’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에 목회와 목양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한계를 뛰어 넘는다’는 CGNTV의 자신감은 “위기의 시간마저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감사의 고백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선교는 나라와 언어의 경계를 넘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같은 국경 안에 있어도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나의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계층과 세대 간의 경계를 극복해야 한다. 그동안 사역의 든든한 원동력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뒷마당이 오히려 선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자립교회 주일학교를 섬기는 ‘풍당교회학교 프로젝트’ 등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새롭게 허입하는 차세대 콘텐츠가 바로 그 선교지를 향해 가는 CGNTV의 발걸음이다.

2022년 정기약정 후원행사를 통해서 CGNT

V를 향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붙잡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Acts29 DNA’가 빛을 발했다. 깊이 감사드린다. 오랜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도 꾸준히 CGNTV 후원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미디어 선교의 선봉을 충실히 지키는 CGNTV가 되도록 매일 한계 없는 도전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CGNTV 정기후원 방법

1. CGNTV 홈페이지나 전화(02-796-2243)에서
2. 정기, 일시, 증액 후원을 선택하면 된다.
3. 계좌이체,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에서 후원 방법을 선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기에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고 대적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35-37절).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고, 끊을 수 있는 방해물들을 열거합니다. 일곱 가지 역경입니다.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협, 칼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 많은 사람이 신앙 때문에 당하고 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비슷한 시기 <요한일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요일 5:4).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상 세상을 정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복당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모든 고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요 16:33).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경기에서 승리하면 온 국민이 우리가 이겼다고 기뻐합니다. 자신이 싸우지 않았는데 왜 이겼다고 말합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 약속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인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협, 칼 등이 모두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그 모든 고난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편 기자의 구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다시 쓴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이 ‘모든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으로 끝이 납니다. 37절을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범위는 얼마나 넓을까요? 38-39절에서 ‘모든 것’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단어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모두 해석할 필요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38-39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요 10:28-29).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손에서 구원의 백성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그 능력의 손에서, 그 희생의 손에서, 섬김의 손에서, 우리를 온전케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전능하신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마지막 확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와 허물일지라도 말입니다. 나의 실패일지라도 말입니다. 나의 죄악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실패로 무너져 갈 때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삶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어떤 인생의 고난, 역사의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한 찬양과 같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이 질문은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담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순회 칼럼’

그곳이 그림다

2021년 5월 라오스로 출발해 1년 4개월 짧은 사역을 마치고 올해 9월 귀국한 늦깎이 단기선교사의 이야기다.

코로나19가 극성이라 우여곡절 끝에 라오스 북쪽 루앙남타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그곳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 영어수업을 했다. 예상과 달리 부유한 집 아이들이 꽤 많아서 놀랐다. 라오스 말을 거의 하지 못해서 초·중·고등학생 수업이 어려웠는데, 현지인 보조교사의 도움이 컸다. 그곳에서는 외국인에게 영어를 배우는 기회가 흔하지 않았고, 수업 방식도 생소해서 많은 학생이 찾아왔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라오스 밖의 세상을 알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첫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꿈’을 적어보라고 했는데, 아이들 모두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라오스 말고는 다른 나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

이 4층짜리 호텔이고, 그 호텔에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당연히 쇼핑물이나 공원, 영화관 등도 없다.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도전이나 꿈을 심어줄 선생님이나 부모가 드물었다. 다행히 영어 교재에서 여러 나라와 도시에 관한 내용을 다뤄서 문화와 배경, 꿈들을 이야기하기에 적합했다. 무엇보다 단기선교사로 파송 받기 전 공동체 장로님의 추천으로 <타문화권 교육선교>라는 책을 읽었는데, 실제 사역에서 많이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을 배웅할 때 큰 소리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고, 속으로는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라오스에서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는 아이들이 드물다. 지난해에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영어 노래를 외워 부르게 하고 선물을 나눴다. 아이들이 언젠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작은 추억이 되기를

소망했다.

중고등학생들과 꽤 매우 친해져서 귀국을 앞두고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내가 저녁 식사를 사겠다고 했더니 조금 비싼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식사가 끝나니까 학생들이 돈을 모아 음식값의 일부를 지불했다. 라오스 음식을 준비해서 선생님과 식사하고 싶다면 음식은 사 온 아이도 있고, 집에서 기르던 닭 두 마리를 직접 잡아서 솥불에 양념을 발라서 구워 온 아이도 있었다.

귀국을 앞두고 다시 꿈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부하러 미국을 가겠다는 아이, 성공해서 나에게 밥을 사겠다는 아이들이 있었다. 라오스 말고는 아는 나라가 거의 없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꿈이 생긴 것 같아 정말 감사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현지 보조교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다. 현지 보조교사는 소수민족이다. 너무 힘든 환경에서 자라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 감정표현을 거의 하지 않

았다. “선생님들이 선의를 베풀면 받고 나서 꼭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라”, “퇴근하면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고 가라”는 등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했다. 보조교사가 소수민족이라서 선생님 대우를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보조교사를 선생님으로 높이 부르며 존중해줬다.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더니 내가 두 번째 엄마 같다고 했다. 그 덕분에 라오스에 26살 영적 아들이 생겼다. 앞으로 그의 신앙은 현지에 계신 장기 선생님들이 돌봐주실 계획이다.

매일 걸어 다녔던 40도의 출근길, 날마다 침실과 부엌을 방문하던 도마뱀, 부엌 구석구석을 옮겨 다니는 개미와 벌레를 더는 만나지 않는 것은 좋지만,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 넓은 들판, 선생님을 보내기 싫었던 아이들이 그림다. 복음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던,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영적 아들이 그림다.

/ 손종열 선교사(영등포구로공동체, 라오스)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립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

시간: 시인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 2층(용산구 한강대로 363-2)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임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참좋은친구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통일선교학교

일시: 10월 29일~11월 26일 (매주 토 오후 7시 30분~9시)

신청: 아이스쿨

회비: 2만 원

문의: 010-4337-5927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세미나 기획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서점직원(분당) 각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

지역: 서울 서빙고동, 본당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창조과학탐사 모임

일시: 11월 5일 오전 7:00 출발 ~ 6일(주일) 늦은 저녁 귀경(1박 2일)

탐사: 전북 진안(마이산), 부안(채석강, 적벽강), 김제(가자교회)

모집: 선착순 35명(가족 및 타교인 환영)

비용: 10만 원

문의: 김중명 팀장(010-7636-6305)

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 모집

모집: 정규직 1명

업무: 선교훈련 담당 및 기획동원 업무

장소: 양지Acts29비전빌리지 3층

근무: 채용 즉시(11월 중), 화~토요일

문의: 070-4464-8102

*게시판 광고미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후원

1. 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2. 운동화(사이즈 190-230)

3. 아이들의 공책, 필기 도구

4. 집에안쓰고 가지고있는수건(욕실타월)

보내실 곳: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570-7469)

일대일양육자반 박동현 장로반

일시: 11월 5일~23년 2월 25일 (매주 토 오전 10~12시 30분)

신청: 아이스쿨

문의: 02-570-7349

부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대전 O42. 825. 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 565. 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O31. 651. 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14:2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 437.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O2. 475. 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양지 O31. 331. 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CGNTV의 함께하는 후원에 동참해주신
2,200여 명의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고 없는 순수 복음 콘텐츠와 '풍당' 플랫폼으로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겠습니다.**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 10만 회원 감사 이벤트

성도님들의 생원 덕분에 풍당 가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퀴즈에 참여하셔서 풍당 가입자 10만 돌파를 축하해 주세요.

이벤트 기간 2022년 10월 30일 ~ 11월 19일

당첨자 발표 2022년 11월 25일

참여 방법 '풍당' 앱 또는 CGNTV 웹사이트
(www.cgntv.net)



fondant



CGNTV와 함께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신규후원QR



증액후원QR

CGNTV
함께!
미디어선교